

日本語 表記法 改定試案 마련

日本에서는 1946년 戰後 국어 표기법 개혁의 중심 작업으로 작성된 ‘현대 가나 사용법’의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여, 1985년 2월 그 改定試案을 公表하였다. 이 개정안은 國語審議會(會長 有光次郎 일본 예술원장)가 2년 반에 걸친 심의 결과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소폭 수정에 그 성격을 종래의 ‘準則’에서 ‘根據’로 고치는 등의 규범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國語審議會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說明會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答申을 할 방침이다.

일본은 戰後에 ‘현대 가나 사용법’, ‘當用漢字表’ 등을 채용하여, 그 뒤에 이들을 재검토해 왔으며, 이번의 ‘현대 가나 사용법’의 재검토를 끝으로 戰後 약 40년간의 현안 문제인 국어 표기를 일단 마무리지은 것이 된다.

1946년에 제정된 ‘현대 가나 사용법’은 그 때까지 쓰이고 있었던 ‘歷史의 가나 사용법’을 현대어의 발음에 의거하여 表音의으로 고쳐(る→い, からべ(神戸)→こうべ 등) 당시의 吉田 內閣이 고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문장을 써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한편, ‘古典이나 문화적 전통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라는 전통 존중파의 비평도 끈질기게 제기되어, 國語審議會가 이를 검토하고 있었다.

試案은 우선 ‘현대 가나 사용법’이 40년 가까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용법이 안정된 것으로 분석, 대폭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한층 쓰기 쉬운 것으로 손질하는 데 그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 그 規範性에 대해서는 ‘현대 가나 사용법’의 ‘準則’이 ‘국가에 의한 強制’라고 받아들여진 점을 배려하여 ‘根據’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쫓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드러운 성격을 띤 것임을 밝힌 것이며, 또 그 적용 범위를 “法令, 公用文書, 新聞, 雜誌, 放送 등 一般의 社會生活에 한정하여, 科學, 技術, 藝術 그 밖의 專門分野나 개개인의 표기에까지 미치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님”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구체적인 가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현대어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 나타냄’(表音主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일정한 特例를 인정하는 취지에서는, ‘현대 가나 사용법’과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규칙 수립 방법을 간명화하였다.

예를 들어, ‘才’(오)列의 長音에 대해서는 종래 ‘う’를 붙이는 것을 本則으로 하고 ‘お’를 붙이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試案에서는 ‘う’로 한정하고 ‘お’를 붙이는 예외로는 ‘とお’(도오, 十), ‘こおる’(120면에 계속)